

부직포, 원료가 인상 항의 장외투쟁

PP·PET 가격 30-40%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 ... 플라스틱과 연대

부직포 중소생산기업들이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하락으로 장외투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부직포의 원료인 PP(Polypopylen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가격이 2003년 12월보다 30-40% 상승하면서 대부분 영세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익성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원료가격이 6월 이후 매월 인상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한국PP섬유조합과 연대투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장외투쟁은 이르면 추석 이후 본격적인 일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섬유 관련조합 및 협회들의 장외투쟁이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맞물리게 된다면 화학원료를 가공하는 다른 가공기업조합까지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석유화학기업들과 원료가격과 수급불안에 대해 심한 갈등을 빚어 왔고 결국 산업자원부의 중재로 항의집회를 유보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추석을 전후해 긍정적인 답변이 없다면 항의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09/30>